



일본 정토진종 본산 니시혼간지 고에이도(개산조인 신랑 스님을 기리는 건물) 방문, 정토진종 국제부 후지노 미노루(맨 왼쪽) 스님의 안내를 받고 있다.

# “전통 아끼는 불심에 놀랐어요”

## 울산불교신도회 간부들 일본성지순례

“조사스님들을 크게 받드는 일본 사람들에게 감명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더 훌륭한 조사스님들이 많지만 과연 우리는 선 조사스님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있고 그 가르침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고야산 해광원에서 사찰정진요리로 공양하는 조사스님들에 대해 담백하고 정갈한 사찰음식과 공양법은 일본 음식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거리에서 십자가를 한번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교토에서는 버스정류장 이름이 절이름인 곳이 많아 인상적이었어요.”

황경환 회장의 2월 취임 후 새 집행부를 구성한 울산불교신도회 간부진 25명 전원이 6월 3-6일 일본으로 첫 해외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코스는 고야산(高野山) 일대와 나라, 교토, 정토진종 본산인 니시혼간지(西本願寺), 담정의 금당벽화로 유명한 호류지(法隆寺), 우리나라 미륵반가상과 쌍둥이처럼 닮은 일본국보 목조 미륵반가사유상이 있는 코류지(隆隆寺), 소설 <금각사>로 유명한 킨카쿠 로쿠온지(金閣 鹿苑寺), 기요미즈데라(清水寺), 오사카 등.

울산불교신도회는 ▲시스템을 갖춘 조직구성 ▲불자들의 참여 의식 고취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펴는 전법 ▲울산불교방송 개국 등을 당면과제로 삼았기에 일본불교를 견학하며 현위치를 돌아보고 향후 일본의 우수한 신도회와 교류를 위한 사전점검의 의미도 이번 첫 해외 성지순례에 담겼다.

### 해외의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단체와 교류 예정

첫날인 3일에는 와카야마현 고야산을 방문했다. 해발 800m 지점 일대에 자리잡은 분지를 중심으로 약 4km에 걸쳐 총본산 곤고부지(金剛峯寺)를 비롯 사찰 52곳에 400여 채 건물이 모여 있는 일본불교의 최대 성지다. 2004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이곳서 무엇보다도 눈길을 끄는 것은 중흥조 홍법 스님의 묘탑을 정점으로 양옆으로 수 km에 걸쳐 늘어선 역대 일본 천황들과 권세가, 지도자, 경제인들의 묘탑 3600여기. 부귀와 권세, 공명을 마음껏 누리 명망가들의 묘탑들이라 이곳은 순례코스도 유명

하지만 정작 삶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성찰의 성지이다.

4일, 1만5백여 사찰과 1천2백만명의 신도를 자랑하는 일본 정토진종의 본산 니시혼간지를 방문했다. 정토진종의 개산조 신랄(親鸞) 스님을 모신 고에이도오(御影堂)를 비롯 절 경내를 정토진종 국제부 후지노 미노루 스님이 안내해 주었다. 1636년 세워진 고에이도오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건물로 현재 대대적으로 보수중이다. 꽃 나무 새 책 동물 등, 방방마다 다양한 소재로 섬세하게 그린 그림들과 장대한 전각 규모가 놀라웠다.

“문화재라든가 사람의 보존이 정말 잘 돼 있었어요. 사람들도 그곳에 보이고 전통을 아끼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고석열 부회장과 김화자 울산 불교여성회장은 이구동성으로 고야산의 여러 절들과 호류지, 코류지 등을 돌아본 소감을 이렇게 토로했다.

### 세계적 성보 백제관음과 미륵반가사유상 참배...명상도

5일 찾은 곳은 담정의 벽화로 유명한 호류지. ‘구다라(백제) 관음당’에 들어갔을때 모두들 그만 숨을 잠깐 멈추었다. 감로수병을 살뜰 왼손에 들고있는 관음보살님은 8등신 날렵한 몸으로 잔잔한 자비미소를 참배객들에게 보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어 코류지(隆隆寺)로 가서 그 유명한 미륵보살반가사유상을 친견했다. 손가락을 뺏아 말라말라, 보살님은 열반의 심오한 미소를 띠고 한국에서 온 불자들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3배후 참배자리에서 황경환 회장을 비롯 몇몇 불자들이 잠시 명상에 들었다.

순례기간중 토론회도 열렸다. ‘불자라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수행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 수행방법, 교리 등에 대해 문답이 이어졌다. “하루 단 10분이라도 실제 수행을 하고 이를 차차 늘려가는 모범을 간부들부터 보이자”는 결론에 도달했다.

“향후 대만, 캄보디아 등의 불교국가를 방문해 좋은 인연을 맺고 21세기 이 시대에 부처님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하고 전파할 것인가를 함께 모색할 겁니다.” 황경환 회장은 대만 등 불교국가의 수행단체들과 만나 교류하고 서로의 장점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구태의연한 수행모습에서 벗어나 지구촌의 불자들과 함께 한다는 의식으로 불교의 생활화에 초점을 맞추어 신도들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견학은 매우 유익했다”는 것이 일본불교를 돌아본 울산불교신도회 간부들의 소감이었다.

글 사진/일본 고야산=이경숙 기자



# “빚줄기도 불사 열기 못 식히죠”

## 지상 스님, 군복무 부대에 법당 건립

## 사비 털어 착공... '호국사' 24일 낙성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에 위치한 11사단 9여단 법당 호국사. 6월 8일 하루종일 비가 내렸지만 법당 신축 공사 현장에는 장병들과 공사 인부 20여명이 분주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각목은 이쪽으로 옮겨 주세요. 비가 그치면 바로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젓빛 작업복을 입고 현장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 지상 스님은 공사 인부들에게 일일이 작업 지시를 하며 법당 내부 여기저기를 점검하고 있다.

지상 스님이 기존 호국사를 헐고 신축 법당을 짓는 이유는 장병들이 법회를 마음 놓고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존 호국사는 규모가 워낙 작아 장병들이 들어가 법회를 볼 수 없을 정도였고 건물 내부에 누수가 되는 등 열악했다. 90년 자신이 이곳 호국사에서 군종병으로 근무하면서 출가를 결심해 개인적으로도 의미있는 법당인데다가 지금은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 자신의 사비를 털어 4월 15일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불사가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다. 처음에 계획했던 것 보다 예산이 훨씬 초과되었기 때문. 조계종 군종교구와 11사단 고현동, 김대수 군법사와 신도회 등에서 실시일반 모금을 통해 도움을 주었지만 예산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스님은 지인들에게 토종 가시오가피를 판매하기도 했고 지금은 은행에 대출까지 받아 불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비가 많이와 걱정이 되어 법당 불사 현장에 찾아가는 11사단 호

국 화랑사 신도회장 장원섭 중령은 “공사 인부들과 함께 현장에서 동고동락하며 작업을 하며 틈틈이 시간을 내어 공사 자재 등을 보시 받아 불사를 진행하고 있는 스님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 뿐”이라며 “스님이 이곳 호국사 군종병 출신이어서 다른 사람 보다 열정이 많아 불사가 잘 마무리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상 스님은 은사 스님이신 무량사 홍선 스님이 군법당 법회를 도와주라는 이야기를 듣고 1공병 여단 지도법사로 7년을 활동하면서 군포교 중요성을 더욱 절감했다. 그래서 지금도 호국사 불사를 하면서 인근 3기갑 호국 청심사 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동안 11사단 포병연대, 60사단 등의 군법당 불사를 마쳤다. 또한 한국전쟁으로 산화한 호국 영령들을 위해 치열했던 전투 지역을 찾아가며 호국 영령제를 봉행하고 있고



호국사 정경(사진 왼쪽)과 작업을 감독하는 지상 스님.



###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불교단체 포환’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추어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천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 ■어떻게 동참하나

-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 ▷군법당 위문 : 소외된 군법당을 위문.
- ▷군법당 건립 후원 : 남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법자에 후원품 전달.
-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혈양성 후원 석가모니상(석조·銅) 문의:02-2004-8291

### 만인동참

ARS: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 軍佛敎 후원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심자!

군인은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이들이 조국통일의 염원을 안고 헌신, 봉사하는 나라의 간성입니다.

6.25 전쟁 때 목사, 신부는 군에 종군하여 선교활동하던것에 비해 불교는 뒤늦게 월남전이 한창이던 1968년에 최초로 5명의 군승이 입관한 이후 지금까지 37년 동안 포교활동을 하였습니다. 육해공군 397곳에 법당에서 136명의 현역 군승이 15만1천여 명의 장병불자와 함께 연간 1만 6천여 회 법회를 실시하였으며 연간 200만 명이 법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8만여명의 군장병에게 수계식을 거행하여 신심있고 굳건한 불자로 육성하여 부처님의 가피 속에 보람있는 군생활을 영위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종교의 지원에 비해 군승이 불법을 호종하기에는 너무나 힘에 부칩니다.

## 존경하는 대덕 스님과 불자님!

## 저희 군불교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한국불교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군불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군불교 후원으로 한국불교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 萬人同參 후원금은

- 군장병 포교를 위한 교재, 용품, 서적
- 군장병 불자 수계식 용품(염주, 호신불 등)
- 군장병 위문, 방문, 신도활동에 필요한 위문품의 구입과
- 군승 활동을 위한 지원금품
- 군장병 신행도량(법당) 건립
- 군장병 가족 교화를 위한 교육관 건립 등에 유용하게 쓰여집니다.

## 軍佛敎를 후원하시려면

- 만인동참은 한사람 한사람이 한달에 일만원씩 후원하는 동참불사입니다.
- 더 많은 도움을 주신분은 설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단위사찰별로 년간 또는 월간 일정액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 신행단체나 사회단체도 년간 또는 월간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 ARS 한통화는 군장병에게 초코파이 한통을 보낼 수 있습니다. (ARS 060-700-0108)

\*만인동참이나 후원을 해주실 분은 군종교구로 연락주시시오.  
\*후원금을 보내실 분들은 은행계좌를 이용해 주시고 보내신 후 전화 주십시오.

### 1인 1만원 만인동참 후원

제일은행 325-20-203673  
우리은행 1005-580-051116  
농협 094-01-156954  
지로번호 7681972

조흥은행 377-01-058158  
우체국 010025-01-010767  
국민은행 477401-01-092896  
예금주 : 군종특별교구

문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원광사 內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 FAX 02)796-0221 / 軍 900-7751  
홈페이지 : www.gunbulkyo.org

##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